

아동기 외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 증상의 관계: 경험 회피와 고독감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 Age: The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Loneliness

정 유 수**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Yusoo Jeong

Christian Studies Division, Baekseok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초록)

아동기 외상 경험은 평생에 걸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영향은 경험 회피를 비롯하여 고독감의 증가, 생의 후반기까지 그로 인해 우울 증상을 초래하거나 심화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외상으로 인한 경험 회피와 고독감이 우울 증상까지 이어지게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애착 외상을 경험한 65세 이상의 남녀 200명이었다. 분석 자료는 아동기 외상 경험, 우울, 경험 회피, 그리고 고독감 척도를 담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고, 아동기 외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와 고독감의 매개효과는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 경험은 경험 회피를 통해 그 우울 증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경험 회피가 고독감을 심화시키면서 우울 증상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의 후반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기 외상 경험의 후유증 예방 방안 마련의 지침을 시사한 것이다.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이

* 본 논문은 백석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Correspondence to: (우) 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조교수 정유수 (e-mail: epistole@bu.ac.kr)

있는 자들의 우울증 예방은 경험 회피와 고독감 문제에 대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그 구체적인 개입 방안의 핵심은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과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임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아동기 외상 경험, 노년기 우울증, 경험 회피, 고독감

(Abstract)

Childhood trauma can have a variety of negative psychological effects throughout the lifespan. The most notable effects include experiential avoidance, increased loneliness, and the onset or intensifica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later life. This study aimed to verify whether the trauma directly influences depressive symptoms in old age, and whether experiential avoidance and loneliness resulting from the trauma lead to the depressive symptoms.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200 men and women aged 65 and older who experienced attachment trauma from their caregivers during childhood.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of scales measuring childhood trauma, depression, experiential avoidance, and lonel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lonel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late-life depressive symptoms were analyzed using Hayes' Process Macro. The main finding was that childhood trauma did not directly affect on depressive symptoms in late life. However, the trauma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symptoms through experiential avoidance as a mediating variable.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experiential avoidance resulting from the trauma intensified feelings of loneliness, which subsequently influenced the symptoms. The findings suggest guidelines for preventing the long-term aftereffects of the trauma that can have negative effects in later life. In other words, preventing depression in older adults with the trauma would be an intervention for the problems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loneliness. To address this, specific intervention strategies such as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and strengthening social support systems were emphasized.

Key words : Childhood trauma, Geriatric depression, Experiential avoidance, Loneliness

I. 서론

우울증 유병률은 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20년 기준 한국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약 13.5%였다(H. Cho, Lee, & Nam, 2023). 노년기 우울 증상은 삶의 질 저하로 직접 연결되며,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Okolie, Dennis, Thomas, & John, 2017; Taylor, 2014). 노인 자살에 관련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살한 노인의 50~87%가 자살 당시 우울 증상이 심

했던 상태라고 보고되었다(K. Kim & Kim, 2015). 고령자에게서 나타난 우울 증상은 본인은 물론 대다수 주변인도 노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어서 노년기 우울증의 조기 발견이나 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K. Kim, Yun, & Sok, 2006). 그러므로 노인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년기 우울 증상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혹여 증상이 의심되는 자를 발견할 시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 우울 증상 관련 요인을 밝힌 국내

외 여러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을 비롯하여 나이, 경제 상태,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가족 관계, 생활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고독감 등이 고령자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관되게 드러났다(Beekman, Copeland, & Prince, 1999; Blazer, 2003; D. Kim & Sohn, 2005; Cole & Dendukuri, 2003; Luppá, Sikorski, Luck, Ehreke, Konnopka, Wiese, et al. 2012; Mezuk, Edwards, Lohman, Choi, & Lapane, 2012; Yaka, Keskinoglu, Ucku, Yener, & Tunca, 2014). 특히 퇴직이나 사별 등에 의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고령자의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심각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Alhalaseh, Kasasbeh, Al-Bayati, Haikal, Obeidat, Abuleil, & Wilkinson, 2022).

노년기 우울 증상 관련 연구 방향 중 하나가 아동기 외상 경험에 관한 것인데, 연구자들은 아동기 외상 경험과 같은 초기 생활 경험이 성인기 이후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Allbaugh, Wright, & Seltnann, 2014). 역으로 성인기 이후 우울 증상은 아동기 외상 경험에 연관된 부적응 증상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드러난 주요 문제라고 한다(Bernet & Stein, 1999; Bifulco, Bernazzani, Moran, & Jacobs, 2005; Briere & Runtz, 1988). 실제 아동기 학대 경험에 따른 성인기 우울증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은 일관되게 유의미했다(Gibb, Alloy, Abramson, & Marx, 2003;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Shields, Ryan, & Cicchetti,

2001). 그뿐만이 아니라 아동기 외상 경험은 어린 시절부터 안정된 애착 및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방해하여 성인기에 고독감과 단절감을 겪게 한다(Cacioppo, Hughes, Waite, Hawkley, & Thisted, 2006). 또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결핍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Allen, Gilbody, Atkin, & Feltz-Cornelis, 2023; Fan, Chen, Zhu, Mao, & Li, 2023; Shevlin, McElroy, & Murphy, 2015; Yöyen, 2016).

아동기 외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알아보려는 연구 이외에도 그 관련성을 매개하는 요인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개변인에 관한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생의 여정에서 노년기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제공하므로 우울증 예방이나 감소 전략의 수립 시 어떠한 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매개 역할을 하는 요인 중에서도 특히 고독감은 아동기 외상 경험의 직접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노년기 우울증을 예측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요인에 해당한다(Holwerda, Tilburg, Deeg, Schutter, Van, Dekker, et al., 2016). 예를 들면,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고독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편인데(Maes, Nelemans, Danneel, Fernández-Castilla, Noortgate, Goossens, & Vanhalst, 2019), 전술한 바처럼 고독감은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 증상을 초래하거나 더 심하게 한다(Alhalaseh et al., 2022).

고령자의 고독감을 설명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관계 상실이나 건강 악화, 퇴직 후 사

회적 기여도 저하, 사별 혹은 재정 악화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동기 외상 경험처럼 아동기 이후 생애에 줄곧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몇몇 연구에서 고독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비난이나 비판과 같은 부정적인 자극에는 민감성이 높았던 반면에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자극에는 민감성이 낮았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고독감이 우울 증상을 유발했다고 예측된 결과이다(Cacioppo, Cacioppo, & Boomsma, 2014; Cacioppo et al., 2006; Heikkinen & Kauppinen, 2004). 이는 역시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고독감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까지 영향을 유효하게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뜻한다.

매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요인은 경험 회피(experiential avoidance)인데,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의 산물로서 노출이나 회상을 원하지 않는 과거의 정서나 기억, 생각 등 내적 경험이 어쩔 수 없이 되살아나면 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부정적인 경험을 초래한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지과정으로 정의된다(A. Hayes, Montoya, & Rockwood, 2017;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외상을 경험했던 사람은 나중에 외상에 관련된 기억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시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 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그와 같은 경험 회피는 부분적으로 자기 보호의 기능을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상관없이 지나치게 엄격한 방식으로 무조건 회피하면서 결국 병적인 회피 노력에 전념하게 된다(Kashdan et al.,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경험 회피는 심리적 고통을 지속시키고 정상적인 정서 경험까지도 방해하여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Kashdan et al., 2006). 또한 경험 회피는 외상에 관련된 기억 처리를 회피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Berman, Wheaton, McGrath, & Abramowitz, 2010). 실제로 경험 회피는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고(S. Hayes, Strosahl, Wilson, Bissett, Pistorello, Toarmino et al., 2004; Kashdan et al., 2006), 고령자의 불안 수준도 증가시키며(Cookson, Luzon, Newland, & Kingston, 2020), 그리고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도 매개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Polusny, Rosenthal, Aban, & Follette, 2004; Rosenthal, Hall, Palm, Batten, & Follette, 2005). 아울러 경험 회피는 고령자의 고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경험 회피 수준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나 고립감 증가가 더 두드러진 편이었다(Amini, Cham, Salehi, & Zadeh, 2019). 경험 회피는 개인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수용하고 직면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미 형성된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작동한다. 곧 고령자에게도 경험 회피는 사회적 및 정서적 연결을 감소시키면서 고독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Berman et al., 2010; S. Hayes et al., 2004; Polusny et al.,

2004; Rosenthal et al., 2005).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해 초래한 경험 회피와 고독감이 우울 증상의 수준에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 증상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뿐만 아니라 경험 회피와 고독감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및 경험 회피와 고독감이 우울증에 매개하는 <Figure 1>과 같은 경로를 확인하고자 했다. 즉 본 연구의 가설은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의 경험 회피와 고독감, 그리고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경험 회피가 고독감과 우울증에 그리고 고독감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경험 회피와 고독감은 아동기 외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증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경험 회피와 고독감의 매개 역할은 그 관계에서 순차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고령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의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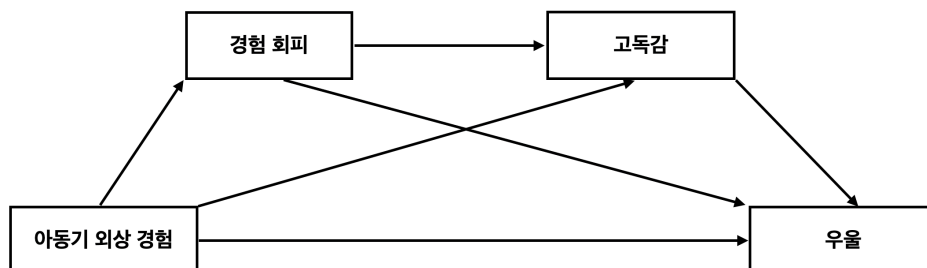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동기에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외상을 경험했던 65세 이상의 남성 100명과 여성 100명이었다. 그들의 나이는 평균 68.14세($SD=3.72$)로 남성은 69.14세($SD=4.15$) 그리고 여성은 67.14세($SD=2.92$)였다. 한편 교육 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율이 21%($n=42$), 대졸 60%($n=120$), 그리고 대학원 졸업은 19%($n=38$)이었다. 성별에 따른 교육 수준을 비교한 결과, 남성(고졸 이하 16%, 대졸 58%, 대학원 이상 26%)이 여성(고졸 이하 26%, 대졸 62%, 대학원 이상 12%)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chi^2=7.672$, $p<.05$).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 설문지에는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학력을 묻는 3문항, 그리고 네 가지 척도의 65문항 등 총 68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네 척도에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mediation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외상 경험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경험했던 외상은 아동기 정서적 외상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했다(E. Kim & Kim, 2010). 이는 Bernstein 등이 1994년 개발한 70문항의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를 2003년 25개의 임상 문항으로 축약한 도구의 한국어 번역본에 해당한다(Bernstein, Fink, Handelsman, Foote, Lovejoy, Wenzel et al., 1994; Bernstein, Stein, Newcomb, Walker, Pogge, Ahluvalia et al., 2003). 이는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외상 경험에 관련된 문항으로 정서적 학대를 비롯하여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5개의 하위 요인,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5개 하위 요인 중에서 성적 학대는 다른 학대유형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증상의 측면을 띄고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처럼 제외한 후 총 20문항을 사용했다(E. Choi & Ahn, 2011; E. Kim & Kim, 2010; N. Choi & Lee, 2018).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4점 척도['없음'(1)에서 '자주 있음'(4)까지]였으며, 총점(20~80)이 높을수록 어린 시절 방임이나 학대를 더 심하게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92로 나타났다.

2) 노년기 우울 증상

노년기 우울 증상은 단축형 노인 우울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했다(M. Cho, Bae, Seo, Ham, Kim, Lee, & Kang, 1999). 이는 Yesavage

등이 1982년 개발한 30문항의 'Geriatric Depression Scale'을 1999년 15개의 임상 문항으로 축약한 도구의 한국어 번역본에 해당한다(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Adey, & Leirer, 1982). 이는 우울 증상 관련 질문에 '예/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2점 척도['예'(0), '아니오'(1)]였으며, 총점(0~15)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더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91로 나타났다.

3) 경험 회피

경험 회피는 '수용 행동 질문지-II'를 사용하여 측정했다(Heo, Choi, & Jin, 2009). 이는 S. Hayes 등이 2004년 개발한 10문항의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를 2011년 Bond 등이 개정한 도구의 한국어 번역본에 해당한다(Bond, Hayes, Baer, Carpenter, Guenole, Orcutt et al., 2011; S. Hayes et al., 2004). 이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심리적 유연성과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회피하는 경험 회피와 관련된 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자신의 가치와 미래를 추구하면서 긴장되고 두려운 정서, 부정적 사고, 감정 등을 회피하기보다는 기꺼이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7)까지]였으며, 총점(10~70)이 높을수록 자기 경험과 생각을 억압하려는 경향성, 즉 경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더 큼 또는 경험을 수용하는 심리적 유연성이 더 부족함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85로 나타났다.

4) 고독감

고독감은 한국형 UCLA 고독감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했다(O. Kim, 1997). 이는 Russell 등이 1980년 개발한 20문항의 ‘UCLA Loneliness Scale’을 1997년 한국인 대상으로 표준화한 도구의 한국어 번역본에 해당한다(Russell, Peplau, & Curtana, 1980). 이는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에 관련된 문항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였으며, 총점(20~80)이 높을수록 고독감이 더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자 모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 및 자료 수집은 2023년 8월 국내의 한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invight)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65세 이상으로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외상을 경험한 자들이었고, 기관

에 분석용 자료로 남녀 모두 100명씩을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온라인 설문지 조사에 앞서 외상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관련 질문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기에 부모에게서 행해지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 경험이 있으신가요?’였다. 해당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 중단 시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 문구를 제시했으며, 다음에는 조사 참여에 동의 여부를 묻는 문구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해당 문구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한 이후에는 68개의 설문지 문항이 하나씩 제시되었는데, 모든 문항의 응답에 소요한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응답자는 조사 참여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소정의 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의 지침에 따라 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했다(JBNU 2023-08-001-001).

III. 결과

1. 연구 변인의 기초 통계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table

Variable (range)	Basic Statistics				Correlation		
	<i>M</i>	<i>SD</i>	Skewness	Kurtosis	1	2	3
1. Childhood trauma (20~80)	37.125	10.879	.629	-.308			
2. Depression (0~15)	4.070	4.418	.923	-.388	.368**		
3. Experiential avoidance (10~70)	31.155	9.282	.236	-.010	.375**	.703**	
4. Loneliness (20~80)	40.775	10.955	.656	.195	.380**	.684**	.700**

** $p < .01$

아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 증상의 관계 및 그 관계에서 경험 회피와 고독감이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토대로 자료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0과 7.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그 변인들의 기초 통계치 및 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모두 <Table 1>에 제시했다.

2. 연구 모델의 검증

연구 모델에 따라 우선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험 회피, 고독감, 그리고 우울 증상에 미치는 직접 효과, 경험 회피가 고독감과 우울 증상에 미치는 직접 효과, 그리고 고독감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시 95% 신뢰구간은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 표집으로 설정했으며, 신뢰구간에서 간접 효과 값의 상한 및 하한 범위에 0의 포함 여부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했다(A. Hayes & Scharkow, 2013). 또 아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 증상과의 관계에서 경험 회

피와 고독감의 순차적 매개(serial mediation) 효과 분석은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하였다(A. Hayes et al., 2017).

직접 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했는데, 아동기 외상 경험은 경험 회피($b=.319$, $p<.001$) 및 고독감($b=.137$, $p<.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우울($b=.029$, $n.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험 회피는 고독감($b=.765$, $p<.001$)과 우울 증상($b=.201$, $p<.001$)에 그리고 고독감도 우울 증상($b=.145$,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효과의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했다. 먼저 아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의 직접 효과는 .029(-.0117~.0704)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 매개 효과의 검증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 → 경험 회피 → 우울’의 간접 효과가 .065(.0364~.0974) 그리고 ‘아동기 외상 경험 → 고독감 → 우울’의 간접 효과도 .020(.0013~.043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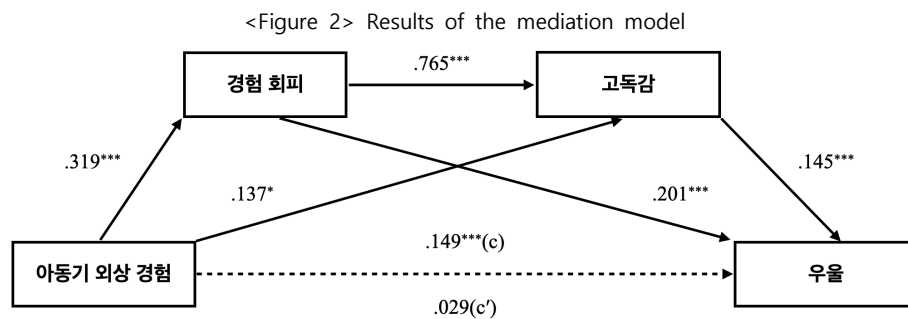
<Table 2> Path coefficients of mediation model

Path			<i>b</i>	<i>S.E.</i>	<i>t</i>	95% <i>CI</i>	
						<i>lower</i>	<i>upper</i>
Childhood trauma	→	Experiential avoidance	.319	.056	5.690***	.2090	.4307
Childhood trauma	→	Loneliness	.137	.054	2.524*	.0300	.2447
Childhood trauma	→	Depression	.029	.020	1.412	-.0117	.0704
Experiential avoidance	→	Loneliness	.765	.064	11.998***	.6395	.8911
Experiential avoidance	→	Depression	.201	.032	6.390***	.1396	.2641
Loneliness	→	Depression	.145	.027	5.420***	.0925	.1982

* $p<.05$ *** $p<.001$.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mediation model

Path	Effect	Boot S.E.	95% CI	
			lower	upper
Direct effect				
Childhood trauma → Depression	.029	.021	-.0117	.0704
Indirect effect				
Childhood trauma → Experiential avoidance → Depression	.065	.016	.0364	.0974
Childhood trauma → Loneliness → Depression	.020	.011	.0013	.0431
Childhood trauma → Experiential avoidance → Loneliness → Depression	.036	.010	.0182	.0565
Total effect				
Childhood trauma → Depression	.149	.027	.0966	.2024



경험 회피 → 고독감 → 우울'의 순차적 매개 효과는 .036(.0182~.0565)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합한 총 효과는 .149(.0966~.2024)였는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및 <Table 3> 내용을 도식화한 모형은 <Figure 2>로 제시하였다.

IV. 논의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향이 다양한 형태로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 우선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자는 성장하면서 그 외상 경험에 관련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S. Hayes et al., 1996). 또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일이 어려워 고독감이나 단절감을 겪게 된다(Maes et al., 2019). 여러 우울증 관련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외상 경험은 성인기 우울증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Allbaugh et al., 2014), 이는 심지어 노년기의 우울 증상으로까지 이어진다(Mandelli, Petrelli, & Serretti, 2015). 물론 노년기의 우울 증상이 아동기 외상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명도 가능하지만(Mandelli et al., 2015; Wang, Chen, Zhou, & Zhang, 2023), 외상 경험으로 인한 경험 회피나 고독감이 노년기 우울 증상 유발에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높다(Cacioppo et al., 2014; Polusny et al., 2004; Rosenthal et al., 2005).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우울 증상에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대한 바처럼 드러났는데, 이를 여섯 가지 측면, 즉 처음 세 가지는 연구 변인들의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나중의 세 가지는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아동기 외상 경험이 우울 증상, 경험 회피 및 고독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여부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대와 달리 아동기 외상이 노년기의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노년기 우울증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한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Hovens, Giltay, Wiersma, Spinhoven, Penninx, & Zitman, 2012; Mandelli et al., 2015; Wang et al., 2023). 곧 외상 경험과 우울증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기 외상 경험이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어 우울 증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Ritchie, Jaussent, Stewart, Dupuy, Courtet, Ancelin, & Malafosse, 2009). 그 유추는 두 변인의 관계를

밝히는 10편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가능했는데, 두 변인은 인과관계보다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Wang et al., 2023).

한편 아동기 외상과 경험 회피의 관계는 기대한 바처럼 아동기 외상이 경험 회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자가 성년이 되어서도 그 외상을 연상시키거나 시킬지도 모르는 경험을 회피하면서 문제 행동에 연루된다는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Fisher, Cohen-Woods, Hosang, Korszun, Owen, Craddock et al., 2013).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을 지닌 자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을 회피하는 부적응적 전략을 사용해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S. Hayes et al., 1996).

또한 아동기 외상 경험은 기대한 바처럼 고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cioppo et al., 2006).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교류 형성이나 유지의 감소에 따라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심하게 겪게 된다는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Allen et al., 2023).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자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노력보다 홀로 지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Shevlin et al., 2015).

둘째, 경험 회피가 우울 증상 그리고 고독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여부이다. 먼저 경험 회피는 기대했던 바처럼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 회피가 단기적으로는 불편한 경험으로부터 해방감을 제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통

을 증가시켜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것이다(Cookson et al., 2020; Fernández-Rodríguez, Coto-Lesmes, Martínez-Loredo, & Cuesta-Izquierdo, 2022; S. Hayes et al., 2004; Kashdan et al., 2006). 한편 경험 회피는 기대한 바처럼 고독감과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경험 회피가 고령자의 고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mini et al., 2019).

셋째, 고독감은 기대한 바처럼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이 우울 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데(Alhalaseh et al., 2022; Cacioppo et al., 2006; Heikkinen & Kauppinen, 2004), 외로움은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 증상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Alhalaseh et al., 2022).

넷째,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 회피의 매개 역할 여부의 검증이다. 기대한 바처럼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는 유의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증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Polusny et al., 2004; Rosenthal et al., 2005).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을 지닌 자가 경험 회피로 인해 우울 증상과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을 초래한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고(Lewis & Naugle, 2017), 또 외상 경험으로 인한 경험 회피가 우울 증상을 증가시켜 자살위험을 높인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Ihme, Olié, Courtet, El-Hage, Zendjijian, Mazzola-Pomietto et al., & Belzeaux, 2022).

다섯째,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독감의 매개 역할 여부의 검증이다. 기대한 바처럼 고독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고독감이 아동기 외상 경험의 직접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노년기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Fan et al., 2023; Holwerda et al., 2016). 이는 아동의 외상 경험 때문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진정한 자기표현과 타인과의 연결 감소로 고독감이 증가하며, 결국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없어서 우울 증상으로 이어지거나 그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이다(Fernández-Rodríguez et al., 2022).

여섯째, 아동기 외상 경험이 노년기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 회피와 고독감의 순차적 매개 역할 여부의 검증이다. 그 결과,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험 회피로 이어지면서 고독감이 유발되어 우울 증상으로까지 연결되는 이중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자가 성장하면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험을 회피하게 되고, 이어서 발생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연구들과 순차적 매개 역할의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다(Lee & Bong, 2018; Wang, Wang, & Duan, 2023).

지금까지 논의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자 중에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자의 우울 증상 예방이나 완화를 위해서는 경험 회피 성향을 개선해 주거나 고독감의 예방이나 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회피하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 또는 외로움을 느끼는지 등을 관찰하여 우울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노인의 경험 회피 수준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이다(Lee & Kim, 2024). 또한 외로움이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Park, 2018). 종합적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을 지닌 고령자의 우울 증상 예방 및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도 추천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의사소통 기술 향상과 사회적 지지망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노년기 우울 증상은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회피나 외로움 지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우울 증상의 예방 및 개입에 있어 대인관계 불편감 해소와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설문 조사 기관에 속한 패널 회원이었는데, 이들은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고 사회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으면서 사회 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자와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둘째, 외상 경험에 대한 해석이 시대마다 다를 수 있는 cohort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고령자에게는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이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노년기 우울 증상은 그 근원을 아동기 외상에 두었는데, 성년기 이후 일상생활에서 겪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배우자 상실이나 만성질환, 경제적 어려움,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등에 의한 노년기 우울 증상과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한 노년기 우울 증상의 예방적 개입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 우울증의 근원은 전술했던 바처럼 다양하다. 이에 노년기 우울증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나이나 아동기 외상 경험 수준 등을 더 세밀하게 고려한 심층 면접 및 양적 연구의 결과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Alhalaseh, L., Kasasbeh, F., Al-Bayati, M., Haikal, L., Obeidat, K., Abuleil, A., & Wilkinson, I. (2022). Loneliness and depression among community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 cross-sectional study. *Psychogeriatrics*, 22 (4), 493-501.
- Allbaugh, L., Wright, M., & Seltmann, L. (2014). An exploratory study of domains of parenting concern among mothers who are childhood sexual abuse survivor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3 (8), 885-899.
- Allen, S., Gilbody, S., Atkin, K., & van der Feltz-Cornelis, C. (2023). The associations among childhood trauma, loneliness, mental health symptoms, and indicators of social exclusion in adulthood: A UK Biobank study. *Brain and Behavior*, 13 (4) [doi: 10.1002/brb3.2959].
- Amini, S., Cham, A., Salehi, A., & Zadeh, M. (2019).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psychological capitals in predicting feeling loneliness by mediating meaning in life in the elderly. *Journal of Psychological Science*, 18 (74), 223-234.
- Beekman, A., Copeland, J., & Prince, M. (1999). Review of community prevalence of depression in later lif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4 (4), 307-311.
- Berman, N., Wheaton, M., McGrath, P., & Abramowitz, J. (2010). Predicting anxiety: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anxiety sensitivi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 (1), 109-113.
- Bernet, C., & Stein, M. (1999). Relationship of childhood maltreatment to the onset and course of major depression in adulthood. *Depression and Anxiety*, 9, 169-174.
- Bernstein, D., Fink, L., Handelsman, L., Foote, J., Lovejoy, M., Wenzel, K., et al. (1994). Initi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retrospective measure of child abuse and neglec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 (8), 1132-1136.
- Bernstein, D., Stein, J., Newcomb, M.,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et al.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7 (2), 169-190.
- Bifulco, A., Bernazzani, O., Moran, P., & Jacobs, C. (2005). The childhood experience of care and abuse questionnaire (CECA.Q): Validation in a community seri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563-581.
- Blazer, D. (2003). Depression in late life: Review and commentar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58 (3), M249-M265.
- Bond, F., Hayes, S., Baer, R., Carpenter, K., Guenole, N., Orcutt, H., et al. (2011).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A revised measure of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Behavior Therapy*, 42 (4), 676-688.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4,

- 357-364.
- Cacioppo, J., Cacioppo, S., & Boomsma, D. (2014). Evolutionary mechanisms for loneliness. *Cognition & Emotion*, 28 (1), 3-21.
- Cacioppo, J., Hughes, M., Waite, L., Hawkley, L., & Thisted, R.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and Aging*, 21 (1), 140-151.
- Cho, H., Lee, H., & Nam, E. (2023). Effectiveness of social prescribing for preventing depression and dementia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18 (1), 1-10.
- Cho, M., Bae, J., Seo, G., Ham, B., Kim, J., Lee, D., & Kang, M. (1999). Valid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GDS)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8 (1), 48-63.
- Choi, E., & Ahn, H. (2011). Effects of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on impaired self-capacities in college women: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 (3), 285-302.
- Choi, N., & Lee, Y. (2018).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interpersonal problem: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self-concept an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 (2), 137-166.
- Cole, M., & Dendukuri, N. (2003).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mong elderly community subjec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 (6), 1147-1156.
- Cookson, C., Luzon, O., Newland, J., & Kingston, J. (2020). Examining the role of cognitive fus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predicting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3 (3), 456-473.
- Fan, L., Chen, Y., Zhu, M., Mao, Z., & Li, N. (2023). Correl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experienc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ults: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loneliness. *Child Abuse & Neglect*, 144 [doi: 10.1016/j.chiabu.2023.106358].
- Fernández-Rodríguez, C., Coto-Lesmes, R., Martínez-Loredo, V., & Cuesta-Izquierdo, M. (2022).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nxiety and depression: The moderating role of cognitive fusion, experiential avoidance and activation. *Psicothema*, 34 (2), 240-248.
- Fisher, H., Cohen-Woods, S., Hosang, G., Korszun, A., Owen, M., Craddock, N., et al. (2013). Interaction between specific forms of childhood maltreatment and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5-HTT) in recurrent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 Affective Disorders*, 145 (1), 136-141.
- Gibb, B., Alloy, L., Abramson, L., & Marx, B. (2003). Childhood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specific inferences: A test of Rose and Abramson's (1992) extension of the hopelessness theory. *Cognition and Emotion*, 17 (6), 917-931.
- Hayes, A., Montoya, A., & Rockwood, N. (2017). The analysis of mechanisms and their contingencies: PROCESS vers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25 (1), 76-81.
- Hayes, A., & Scharkow, M. (2013). The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the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Does method really matter? *Psychological Science*, 24 (10), 1918-1927.
- Hayes, S., Strosahl, K., Wilson, K., Bissett, R., Pistorello, J., Toarmino, D., et al.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4 (4), 553-578.
- Hayes, S., Wilson, K., Gifford, E., Follette, V.,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6), 1152-1168.
- Heikkinen, R., & Kauppinen, M. (2004). Depressive symptoms in late life: A 10-year follow-up.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38 (3), 239-250.
- Heo, J., Choi, M., & Jin, H. (2009).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Translated Acceptance-Action Questionnaire-II.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 (4), 861-878.
- Holwerda, T., van Tilburg, T., Deeg, D., Schutter, N., Van, R., Dekker, J., et al. (2016). Impact of loneliness and depression on mortality: Results from the Longitudinal Ageing Study Amsterdam.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09 (2), 127-134.
- Hovens, J., Giltay, E., Wiersma, J., Spinhoven, P., Penninx, B., & Zitman, F. (2012). Impact of childhood life events and trauma on the course of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26 (3), 198-207.
- Ihme, H., Olié, E., Courtet, P., El-Hage, W., Zendjidian, X., Mazzola-Pomietto, P., et al. (2022). Childhood trauma increases vulnerability to attempt suicide in adulthood through avoidant attachment. *Comprehensive Psychiatry*, 117 [doi: 10.1016/j.comppsy.2022.152333].
- Kashdan, T., Barrios, V., Forsyth, J., & Steger, M. (2006). Experiential avoidance as a generalize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Comparisons with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9), 1301-1320.
- Kim, D., & Sohn, E. (2005).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i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 167-187.

- Kim, E., & Kim, J. (2010).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 (4), 1505-1520.
- Kim, K., & Kim, H. (2015). The systemic contemplation of sadness mediation program applied to internal senio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 (12), 391-400.
- Kim, K., Yun, J., & Sok, S. (2006). Effects of individual reminiscence therapy on older adults' depression, moral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5), 813-820.
- Kim, O. (1997).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 (4), 871-879.
- Krause, E., Mendelson, T., & Lynch, T.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 Abuse Neglect*, 27 (2), 199-213.
- Lee, E., & Bong, E. (2018). Impact of parents' problem drinking on suicidal ideation of their university student childre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childhood trauma, experiential avoid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8 (5), 565-577.
- Lee, E., & Kim, J. (2024). The impact of social empathy skills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mediating effect of age discrimination experiences. *Korea Society for Wellness*, 19 (3), 313-319.
- Lewis, M., & Naugle, A. (2017).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Evidence toward multidimensional predictors of trauma sequelae. *Behavioral Sciences*, 7 (1) [doi: 10.3390/bs7010009].
- Luppa, M., Sikorski, C., Luck, T., Ehreke, L., Konnopka, A., Wiese, B., et al. (2012). Age-and gender-specific prevalence of depression in latest-life -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6 (3), 212-221.
- Maes, M., Nelemans, S., Danneel, S., Fernández-Castilla, B., Van den Noortgate, W., Goossens, L., & Vanhalst, J. (2019). Loneliness and social anxiety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Multilevel meta-analyses of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55 (7), 1548-1565.
- Mandelli, L., Petrelli, C., & Serretti, A. (2015). The role of specific early trauma in adult depression: A meta-analysis of published literature. Childhood trauma and adult depression. *European Psychiatry*, 30 (6), 665-680.
- Mezuk, B., Edwards, L., Lohman, M., Choi, M., & Lapane, K. (2012). Depression and frailty in later life: A synthe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7 (9), 879-892.

- Okolie, C., Dennis, M., Thomas, E., & John, A. (2017). A systematic review of interventions to prevent suicidal behaviors and reduce suicidal ideation in older peopl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9 (11), 1801-1824.
- Park, M. (2018).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Korea: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 (3), 55-81
- Polusny, M., Rosenthal, M., Aban, I., & Follette, V. (2004). Experimental avoidance as a mediator of the effects of adolescent sexual victimization on negative adult outcomes. *Violence and Victims*, 19 (1), 109-120.
- Ritchie, K., Jaussent, I., Stewart, R., Dupuy, A., Courtet, P., Ancelin, M., & Malafose, A. (2009). Association of adverse childhood environment and 5-HTTLPR genotype with late-life depression.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70 (9), 1281-1288.
- Rosenthal, M., Hall, M., Palm, K., Batten, S., & Follette, V. (2005). Chronic avoidance helps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verity of childhood sexual abuse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dulthood.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4 (4), 25-41.
- Russell, D., Peplau, L., & Curtana, C.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te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3), 472 - 480.
- Shevlin, M., McElroy, E., & Murphy, J. (2015). Lonelines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adult psychopathology: Evidence from the adult psychiatric morbidity surve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0, 591-601.
- Shields, A., Ryan, R., & Cicchetti, D. (2001).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caregivers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predictors of maltreated children's rejection by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7 (3), 321-337.
- Taylor, W. (2014). Depression in the elderl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71 (13), 1228-1236.
- Wang, Y., Chen, X., Zhou, K., & Zhang, H. (2023).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childhood maltreatment on elderly depression. *Trauma, Violence, & Abuse*, 24 (3), 1593-1607.
- Wang, W., Wang, X., & Duan, G. (2023).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Associations with rumination, experiential avoidance, and depression. *Frontiers in Psychiatry*, 14 [doi: 10.3389/fpsy.2023.1232884].
- Yaka, E., Keskinoglu, P., Ucku, R., Yener, G., & Tunca, Z. (2014).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epression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9 (1), 150-154.

- Yesavage, J., Brink, T., Rose, T., Lum, O.,
Huang V., Adey, M., & Leirer, V. (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
(1), 37-49.
- Yöyen, E. (2016). Childhood trauma and
self-respect as a predictor of loneliness.
*Journal of Current Researches on Social
Sciences*, 6 (2), 65-78.

Received: October 10, 2024

Revised (first form): November 13, 2024

Revised (final form): November 29, 2024

Accepted: December 4, 2024